

2006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최근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는 끊임없이 없는 웰빙 열풍과 장식과 절제를 오가며 시간과 장소가 서로 엇갈리고 섞이는 과정을 지나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미 극에 달한 물질주의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보다 정신적이고 평안한 삶을 동경하게 된다. 쾌적한 환경과 자연을 통해 감성적인 치유와 자유로움을 얻고자 하며, 화합을 통해 서로 꺼안고 웃을 수 있는 일상을 갈구한다. 이렇게 인간에 중심을 둔 사고는 보다 개인적이고 원초적인 특성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1 개요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도약은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모호한 가상의 경계를 만들었다. 우주를 연상케 하는 현실 공간과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모티브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현실의 공간은 마치 시대를 알 수 없는 고대의 재현이나 미래의 3차원 공간에 있는 듯한 시대착오적 현상을 유발한다. 새로운 신기술과 신 개념의 탄생은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기쁜 상태와 우울한 상태의 기초를 심하게 타는 조울증(躁鬱症, manic-depressive psychosis)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초고속 사회성장에 걸 맞는 개인의 진보가 요구돼 현대인들의 압박감은 커져만 간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보여 지고 있는 지진, 해일, 폭염 등의 극단적인 기후 상태는 지구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과학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인식하게 해 전 세계 사람들은 비상 협조체제와,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방에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더불어 초 자연주의적이거나 신화적 존재에서 평온과 안식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기존의 신에 대한 믿음은 거부하지만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신비감은 더욱 상승된다. 물질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해지면 명상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개인적 공간이 신비로운 주술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2006년의 트렌드 키워드는 '신비주의(Occult Philosophy)'다. 시대를 알 수 없는 옛 것과 미래의 것들이 만나 겹쳐지고 바랜 듯한 모호한 형상의 신비주의 컨셉을 창출해 낸다. 이것은 장식적 무드가 미니멀로 전화되는 과정의 이미지로 예전의 차가운 미니멀이 아닌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미니멀의 시작을 예견한다.

2006 인테리어 트렌드 첫 번째 테마인 Timeless Immemorial (기억의 숲)에서는 빛에 의한 색채분할로 대변되는 인상파의 그림처럼, 한 순간의 빛의 작용에 의한 반사감이나 파장으로 신비스러움이 형상화되며 가려진 채 보이지 않거나 겹겹이 레이어드된 형태로 표현된다.

두 번째 테마인 Nature Nanotech(인간과 신기술의 조우)에서는 미래를 향한 인간의 꿈의 도약들이 유선형의 스타일링과 신소재의 감각적인 소재로 구현되고, 자연에 가까워지려는 욕망으로 인해 하이테크와 내추럴이 결합한다.

세 번째 테마인 Temple of Appetite(감각의 사원)에서는 웰빙,

영적 존재의 신비감이 동양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공간구성, 푸드, 패션 등 전 분야에 걸쳐 화조, 산수 등 동양 모티브가 활용되어 엑조틱한 신비로움이 표현된다.

2 인테리어 트렌드 테마

2-1. Timeless Immemorial (기억의 숲)



서정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적 요소와 함께 연출된다. 매 순간 변화하는 빛을 담아 낸 인상파 화가의 작품처럼 낭만적이고 시적이며 고전적인 분위기가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관능적이고 여성적인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기저에 깔려있지만 이 테마의 핵심은 시대를 가늠하기 어려운 과거의 것과 현재의 새로운 것이 미묘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막 탄생된 새것같이 정교한 아름다움 보다 낡은 듯 바랜 듯 하지만 장인의 숨결과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 더욱 가치가 있는 것에 애착을 느낀다. 이러한 욕구는 부서지고 바랜모티브들에서 세월의 흔적을 찾고, 흘러간 시간의 역사 속에서 신비로움과 우아함을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마치 낡고 오래된 벽화나 태고의 물건에서 전해지는 신비롭고 아련한 기억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테마에서는 오래되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들의 표현을 위해 화이트 컬러와 표백된 느낌의 파스텔 컬러가 연출된다. 여기에 그레이와 블루, 그린의 엷은 터치가 살짝 가미되기도 하며, 파스텔 컬러가 약간의 다크, 미니엄 그레이와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 소재는 색이 빠지고 풍화된 듯하고 깨지거나 부서지고 얼룩진 느낌의 낡은 자재와 텍스처들이 선보인다. 신전에 사용된 고전적인 대리석이나 이리데센트(Iridescent)한 느낌의 세라믹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가구 장식은 정교하기 보다는 마감이 덜된 듯한 효과를

추구하며, 잎사귀, 동식물의 모티브 등 고전적 장식이 함께 어우러져 클래식함과 섬세함을 고급스럽게 연출한다. 낡고 부서질 듯 아련한 기억 속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클래식, 현대적 공간감과 모던함이 가미된 네오 클래식, 그리고 초현실적인 감각이 결합한 컨템포러리 클래식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나타날 전망이다. 재해석된 클래식 스타일들은 옛 것이지만 결코 진부하지 않고 오히려 새롭다.

■ 그림 1.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트렌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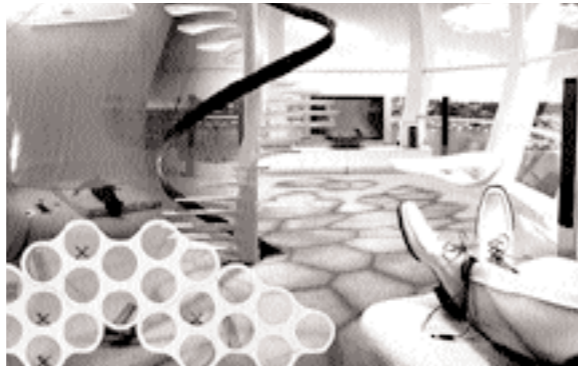


특히 로마나 그리스적인 모티브들의 사용은 기품 있는 우아함과 고풍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는 동시에 고급스러우면서도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서정적인 낭만주의와 신비스러운 것에 대한 동경심을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 또 신화적인 신비로움과 고급스러움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귀한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때문에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르사체(VERSACE)의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 여신에게 버림받은 메두사에서 이미지를 따왔다.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은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는 메두사 스토리는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아름다운 힘의 상징이며 화려하고 관능적인 베르사체 미학의 정신이다. 헤르메스(HERMES) 역시 신화에 등장하는 화려한 자태와 탁월한 외교력

의 헤르메스 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1971년 캐럴라인 데이비슨(Caroline Davidson)이 디자인한 나이키(NIKE)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표현한 것이다. 편안하면서 익숙한 것, 낡고 손때 묻었지만 그 가치는 영원한 것, 상처입은 영혼을 달래주고 지친 심신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 줄 평화로운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클래식한 공간에서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클래식한 이미지의 부드러운 연출로 섬세함을 표현하는 이번 테마는 여전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트렌드를 보여주지만, 정신적인 영혼의 평온함이 깃든 신비롭고 투명한 느낌이 지배적이다.

2-2. Nature Nanotech(인간과 신기술의 조우)



2000년에 들어서며 장식적 무드를 조성하던 인테리어 트렌드는 2004년을 정점으로 화려한 장식미를 뽐냈고, 2005년에도 아르데코의 무드와 함께 절제된 장식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6년에 만날 미니멀은 더 정돈되고 클리어하며, 예전에 젠 스타일이 보여주었던 정적이고 가라앉은 느낌이 아닌 보다 부드럽고 인간적인 미니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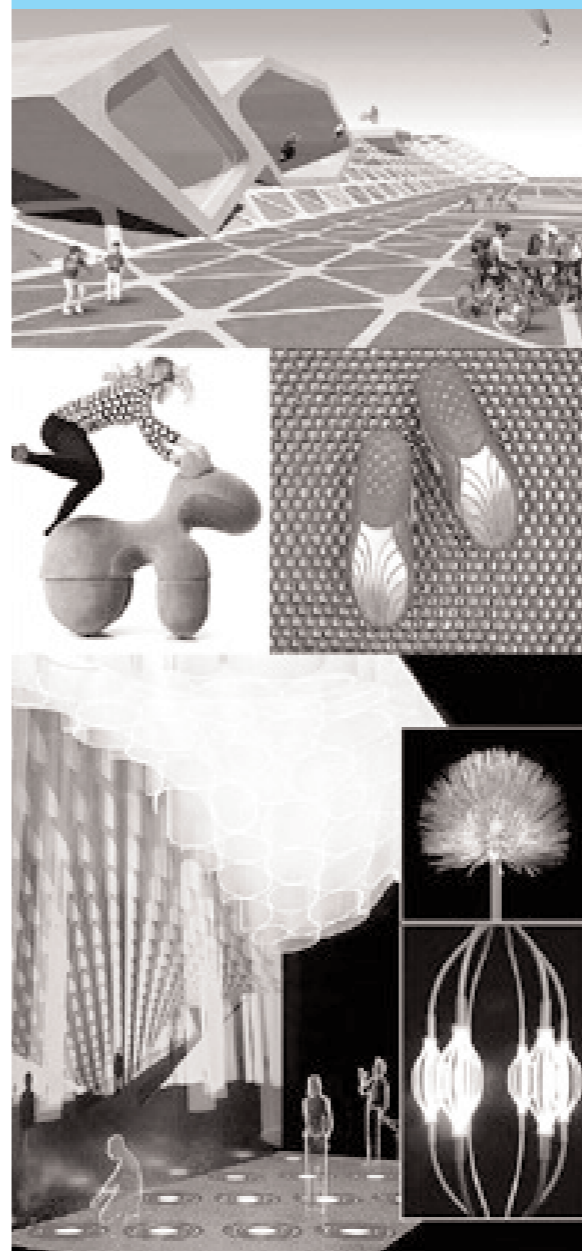
무한한 인간의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도전은 과학기술의 한계를 무너뜨렸으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포부는 신기술과 만나 구체화되고 있다. 두 번째 테마인 Nature Nanotech(인간과 신기술의 조우)에서는 첨단 과학을 토대로 한 미래적인 요소들이 내추럴한 유기적 형태와 결합되어 미니멀하게 표현된다. 여기에 지금까지 추구해온 편안함과 세련됨, 그리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욕구까지 한치의 양보 없이 모두 융합되어 이번 테마에 반영되고 있다.

유기적인 형태와 자연을 모티브로 한 이 미니멀은 자연을 보다 인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발전된 테크놀러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새로운 친환경 소재 사용과 혁신적인 시스템 기능은 이번 인

테리어 테마의 핵심이다.

가장 주목받는 신소재 중 하나가 바로 테크노젤(Technogel)이다. 테크노젤은 장시간 앉아서 보내야 하는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에 처음 적용이 된 소재로,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다국적 화학 회사인 바이엘이 이탈리아의 로열메이커(Royal Medica)와 합작으로 만든 신소재이다. 속이 딱 찬 형태이면서도

■ 그림 2.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트렌드 이미지



우수한 탄성과 복원력을 지닌 테크노젤은 충격흡수력 또한 뛰어나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실리콘에 비해 3배 정도의 충격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테크노젤의 빛을 투과시키는 특성은 의자 쿠션이나 바닥재로 사용할 때 내부에 조명기능을 넣을 수 있으며 촉감이 좋아 신체에 닿는 제품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자전거 안장이나 발의 티눈 같은 작은 상처에 테크노젤로 된 작은 쿠션을 붙여주어 불편함을 줄여주는 제품 등, 인체에 친숙한 제품으로 탄생되고 있다.

신소재 중 통제 가능한 빛의 성질을 이용한 소재들은 기계적인 반응이 아닌 유기적인 반응을 통해 인간의 감성의 촉을 더 넓혀 준다. 각각의 구슬을 건드리면 빛이 나면서 독특한 소리가 방출되는 음악 커튼이나, 432개의 LED로 구성된 아이컬러 타일, 컬러 효과를 빛과 겹쳐 보여주는 플로어 타일은 사람들에게 좀 더 변화무쌍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리트라콘(LiTraCon)은 빛을 전도하는 광학 유리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벽 건너편을 볼 수 있는 콘크리트로 자연풍경을 내부로 끌어 들이는 소재다. 한편 벌집구조의 소재는 낮은 밀도에서도 높은 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얇은 외벽과 안전한 완충재로 사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패널라이트(Panelite)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벌집 구조물의 내부와 반투명한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외벽으로 구성되어, 건물의 내부 벽재나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는 천장재, 파티션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셀본드(Cellbond)철골 회사는 유리막이나 유리섬유, 폴리탄산에스테르를 이용한 벌집 형태의 철근을 제공하며, 이러한 재료는 더 넓고 간결하며 견고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 한다. 유비쿼터스를 염두에 둔 인공지능적인 소재들도 선보이고 있으며, 퍼소닉(Pursonic)의 스피커가 내장된 폴리우레탄 벽재는 벽재 자체가 떨려 소리를 내어 자연적인 음악적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표현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경향도 두드러진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저자극성 항균제, 천연소재와 합성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향후 신소재 개발은 미시적으로는 DNA나 염색체, 나선구조 등의 분자구조부터 거시적으로는 우주 천체를 표방하는 신비로운 공간에까지 그 접근방법이 다양화 될 것이다.

불필요한 장식은 사라지고, 극도로 심플해진 형태와 실루엣을 보여주어 심플함 미니멀 도시 스타일 공간은 유전공학, DNA 나선구조 등에서 영감을 얻어 모던함이 더욱 미니멀해지고, 하이테크적이 된다. 하지만 자연의 형태와 표면이 각종 소재에 영향을 주

어 자연을 모방하거나 변형시켜 공간에 유입되는 첨단 미학을 보여준다. 남성적이던 강한 라인과 형태는 보다 유연하고 소프트해지고, 육체와 정신의 평안을 위해 오브제들은 패딩되고, 쿠션감있게 표현되거나 공기로 채워진다. 여기에 미래적이면서도 차갑지 않은 현대적인 이미지를 위해 천체, 하늘, 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빛과 스펙트럼을 적절하게 사용해 초현실주의적이면서도 내추럴한 공간을 연출한다. 또 하이테크가 주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플라스틱, 비닐, 고무 등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감성적으로 전환하고, 유기적 형태와 부드러운 곡선의 유선형 스타일링을 연출하여 기능과 형태에서 자연미를 표현하고 있다.

전반적인 컬러 경향으로 맑은 거품 화이트에서 펄 그레이, 미지의 다크 컬러가 제안된다. 블루를 중심으로 짙은 청록색, 민트, 아쿠아, 실버, 인디고 블루 등은 미래주의적 느낌과 은하계의 신비로움을 표현하며, 클로로필(엽록소)의 그린빛이 스틸소재와 어우러지며 포인트로 사용된다.

2-3. Temple of Appetite (감각의 사원)



4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 도시 전체를 휩쓸어 버릴 정도의 큰 폭풍, 그리고 최근 동남아시아 일대를 강타한 원폭의 500배나 되는 강진에 의한 지진과 해일 등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후 상태는 자국의 안정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불러왔다. 전 세계 사람들은 비상 협조체제와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동양문화가 서구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순간에 수 천명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러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높아가는 범죄율이나 예측할 수 없는 테러 등의 인재에 노출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실감하며 초

자연적 존재인 신에 매달리게 된다. 고도화된 물질문명의 한계는 오히려 반 문명으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종교에 몰입하게 하거나 우울증 또는 조울증 등의 정신적인 병을 불러오기도 한다.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감정의 조절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명상을 중요시 하는 종교들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병폐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적인 면뿐 아니라 인테리어와 패션에서 최근 몇 년간 인도와 중국풍의 에스닉한 스타일이 유행한 것도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는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될 전망이며, 신비한 영적 존재에 의지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상태는 동양문화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확대되어 표현될 것이며,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요가, 관상, 문신, 풍수 등의 동양철학과 정적인 공간구성의 인테리어, 채식주의 식단, 이국적인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전 분야에 걸쳐 동양적 풍미와 모티프가 활용되어 엑조틱한 신비로움으로 나타날 것이다.

■ 그림 3.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트렌드 이미지



세 번째 테마인 Temple of Appetite(감각의 사원)에서는 맥시멀리즘(Maximalisme)적인 풍부함을 보여주면서 동양으로부터 영감을 믹스한 감각적인 럭셔리함을 표현하고 있다. 디자이너 코코샤넬(Coco Chanel)이 '럭셔리(Luxury)'는 가난의 반대가 아니라 천박함의 반대 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 테마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믹스된 호려하고 풍부한 감각을 선보이지만 결코 천박하거나 물질적이지 않다.

세계 각국의 문화는 더 이상 낯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믹스되어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된다.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하는 다문화적인 특성이 민속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 성향을 띄며 나타나고, 에스닉과 오리엔탈의 풍부한 컬러감이 선보여 진다.

또 하나 이번 테마에서 주목할 점은 동양적이고 종교적인 이미지 표현이다. 신비한 영적 존재에 의지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상태는 동양문화에 대한 폭 넓은 관심으로 확대되어 표현되며, 집은 단순한 쉼터의 기능뿐 아니라 개인을 위한 종교적 공간으로 연출되어 정신적 평온을 위한 공간으로 연출된다. 즉, 실제 주거 공간이 수련과 명상의 공간 또는 사원 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

다양한 요소들의 세련된 융합은 마치 연극적이고 무대 장식적인 연출로 표현된다. 바로크와 오리엔탈리즘의 혼합된 분위기는 관

능적인 세련미와 더불어 기이하면서도 우아한 퇴폐적 판타지와 같은 느낌을 전달해준다. 여기에 커브, 아라베스크, 클래식한 다마스크 모티프, 플라워 아웃라인, 아프리카 패턴(지그재그 모티프, 애니멀 프린트, 얼룩말 무늬) 등 다양한 패턴이 어울려 엑조틱한 무드를 자아낸다.

이 테마에서는 에로틱하고 화려한 모티프가 중요하며,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기능의 수족적이고 민속적인 이미지의 컬러감이 주로 선보인다. 골든 오키는 금빛과 풍요로운 감각을 선사하며, 테마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 다크 그린, 다크 브라운 컬러가 활용된다. 동, 브론즈, 산화된 메탈 등 다양한 메탈릭 컬러도 중용하게 사용되며 아프리카 분위기를 내는 베이지와 블랙&화이트와 사막의 토지와 모래 느낌을 재현해내는 브라운, 오렌지, 핑크 컬러도 주목된다. 비논리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보여주는 묘한 조화는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민속적 수공예와 럭셔리가 결합한 디자인들이 선보인다. S

◎ 참고자료
1. LG화학 디자인 연구소, 'ideas 2006 INTERIOR TREND' 2005.
2. 월간 이하우징, 'AUTUMN-WINTER TREND' 2005.

